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9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99 교사수련회 "저희로 예수님을 알게 하라" 11월 22-23일 1, 2, 3교육위 전교사가 본당에서

1999년도를 보내고 2000년을 맞으면서 맡겨진 교사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99 교사수련회가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저녁 7시에 본당 및 교육관에서 거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을 가진 교사, 그 사람으로 충만한 교사가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심기와 사랑의 품으로 가르치자는 목적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는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영적 부흥의 기회와 구체적인 가르침의 지혜 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수련회의 주강사는 김성관 담임목사와 박형용 협동목사이며, 그룹별 주제특강은 각 부서의 교역자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제1, 2, 3교육위원회의 산하 전 교사들은 금번 수련회를 통해 마땅히 경령해야 할 영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11월 22일(월)			11월 23일(화)		
18:00-19:00	저녁식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19:20	찬양		19:00-19:20	찬양	
	인도 / 전령문 목사			인도 / 전령문 목사	
19:20-20:20	특송 / 지도교역자 전원			특송 / 무장 부장 전원	
	말씀		19:20-20:20	특강	
	사회: 김동하 목사			사회: 정갑진 목사	
	기도: 최태원 장로			기도: 이병학 장로	
	말씀: 김성관 목사			말씀: 박형용 목사	
	기도			기도	
20:20-20:50	인도 / 조원수 목사		20:20-20:50	인도 / 김동하 목사	
20:50-21:00	Tea Break		20:50-21:00	Tea Break	
21:00-22:00	그룹별 주제특강		21:00-22:00	그룹별 주제특강	
강의제목			강사		
유아신앙인양	장희희	영, 유아, 유치부	유아신앙 교육과정	김동하	영, 유아, 유치부
효과적인 분별성공부	한승민	유, 초, 소년부	기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교사	전영준	유, 초, 소년부
10대 이해와 성경공부	엄현일	중동 1, 2, 3부	10대 Q&A 교사	권상현	중동 1, 2, 3부
청년 및 청소년 이해와 기독교세계관	조문환	고, 대, 청년1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사	이승하	고, 대, 청년1부
직장인과 성경공부	이종대	청 2, 신혼가정부, 장 1, 2, 3, 소양부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사	정현민	청 2, 신혼가정부, 장 1, 2, 3, 소양부
사랑과 실천	정혜성	탁아, 사당, 에바다부	소영으로 가르치는 교사	정갑진	탁아, 사당, 에바다부
	영아교육, 새가족부			영아교육, 새가족부	

임직예배 은혜중 마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31대 장로 5명, 제12대 집사 9명, 그리고 제40대 권사 80명을 위한 임직예배가 지난 27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은혜 중에 거행되었다.

약 2천여 성도들이 모여드린 예배를 통해 임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사명 수행을 결심하고 온 성도들은 이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한편, 임직자들은 임직을 기념하여 교회 앞에 소정의 소액장학헌금을 드림으로 천국인론 양성을 위한 헌신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시작하였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482년 전 복음의 정신으로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쾰른리, 칼빈 등을 통하여 계속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혀 종교와 전통의 껍데기를 부수고 복음의 진수를 드러낸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다.

99년도 마지막 성찬식

11월 7일(다음 주일)에는 1999년도 마지막 성찬식이 거행된다.

1-5부예배시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 성도들은 성찬에 관한 말씀들과 설교(3면 참조)를 미리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11월 1-3일 교역자수련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간성경공부 및 구역장훈련 유망 남성구역장 훈련은 진행

교역자 가을수련회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추 수반본에서 진행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를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서 교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교역자 수련회에 따라 금주의 화, 수요일 주간성경공부 및 여성구역장 영성훈련 등은 휴강하게 된다. 단, 수요일 예배 후에 진행되는 남성도구역장훈련 및 목요일 주간성경공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금주의 대신자 전도집회

10월 31일(금) - 9교구
11월 5일(금) - 15교구
11월 6일(토) - 1교구, 10교구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11월 4일(목) - 14교구
11월 5일(금) - 15교구

동서울노회 주교 연합 찬양경연대회 1999년 11월 6일(토)

제27회 동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교 찬양경연대회가 11월 6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갈릴리움에서 열린다. 금번 행사는 동서울노회 산하 각 교회 교회학교의 유년부로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학생들이 독창과 중창, 합창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생각하기 예배 지각 근절

과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는 동시에 출입문을 잠가놓는 정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크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늦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편안함 때문인지, 지각자들이 많은 안도감 때문인지 예배에 지각하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집에서 오는 성도들은 일이심만 더 빨리 나오고, 회회가 진행되는 부사나 위원회는 최소한 예배시간 15분 전에는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 하겠습니까. 최근, 제1교육위원회에서 모집한 예배지각 근절 포스터 중에는 "지각은 중죄이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2천년도에 귀 부에서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들을 이렇게 구하십시오 오늘까지 신청 "귀한 당신을 찾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부서에서는 명년도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으려고 분주해집니다. 이를 위해 주간중현에서는 11월 7일자에도 모든 부서에서 참여하는 2천년도 동역자 찾기광고(인론 지상박람회)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 사는 오세(혹은 11월 3일 수요일)까지 내년도에 귀 부서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교사나 일꾼 모집 광고를 주간중현편집실로 보내 주시되, 필요한 교사 및 일꾼들의 자질과 인연, 귀 부서의 특성 등을 함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장 인 목사

자격 있는 성도는 (에베소서 3:14-21)

“...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지럽다는 말은 정신 차리기 힘들다는 말이고, 순서가 바뀐 게 많다는 말입니다. 어지럽기만 해도 위태롭고 무서운데 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연 현상을 보아도 마치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깨어져 나갔는지, 전쟁으로 깨어져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습된 채로 인공적으로 인하여 하늘이 돌돌 말려 가고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워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자격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합격을 하면 영광스럽고 알 길이 완하게 되고 합격을 못하면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기운이 쏙 빠집니다. 그러나 땅 위의 시험은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천국의 합격자가 못되면 다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시험 치르기 전에 자격 있는 성도라는 명패를 달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풍을 위하여 준비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격 있는 신자인지?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며 자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인들이 볼 때에 ‘저분은 예수 믿는구나. 저분은 진짜야’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자격자 혼자 잘 믿는 것보다 훨씬 좋은 줄 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제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하고 별별 말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수 많이 했다’ 하시는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자격 있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격자가 되기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자격 있는 신자의 조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 노릇을 바로 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 배로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간의 결심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자기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심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새 빈니라 부인하는 낙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베드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담대했습니다. 개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렸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사람을 담담할 수 없습니다. 병이 안든 건강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병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병, 욕심병에 걸리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자격 있는 성도는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병 들지 않고, 교만의 병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병 들지 않고, 업신여기는 병 들지 않아야 합니다.

(1)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14, 15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 받아야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강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충언과 그 성도들은 돈의 욕심에 끌리지 말고 더러운 음란 욕심에 끌리지 말고 영명의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책임을, 장로님은 장로님의 책임을,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임을, 찬양대는 찬양대의 책임을, 교사는 교사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아 강건해지고 자격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인간의 결심만 가지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호언장담을 해볼지는 몰라도 베드로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는 환난이 옵니다. 지진이 터지는 환난도 있고 전쟁이 터지는 환난도 있고 핍박의 환난도 있고 유흥의 환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 말세의 때에 신앙을 강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지사”(17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자격 있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속에 신념으로 모시면 제자 도를 바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대장님으로 모시면 싸울 때 의의 편에서 바로 싸우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임금님으로 모시면 백성 도를 바로 하고 세습도 바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생명의 주주로 모시면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아무 것도 잡히지 않게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시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과 악을 심판하실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예수님을 겸손히 모시고 대장 주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행할 길이 완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껏 일부만 아는 것뿐입니다. 많이 알거니 하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땅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지 깨달아지지 않는 대로,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합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것이 복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깨달아질 때에 순종하고

깨달아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종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학생이 배우면서 점점 지혜가 늘고 지식이 느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성경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3)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18, 19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살인 강도도 회개한 하면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과거에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회개한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넘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으신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삽시다. 그 넘으신 사랑의 품을 떠나면 악마의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 사랑, 긴 사랑, 깊은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결 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자격 있는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젊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책임에 충성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자랑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자들은 목사님의 자랑감이 되고, 교역자들은 신자들의 자랑감이 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랑감이 될 만큼 자격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올해의 마지막 섣달주일

오늘은 11월 첫주일이므로 올 들어 여섯번째로 개행하는 1999년도에 마지막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모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기쁨으로 성찬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예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림의 약속과 예언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알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민에 관심하지 말라 한바탕을 믿으니 또 나들이 내리니 내가 너희 집에게 가할 것이 많으니 너희가 문을 열어 두라” (마 24:11-12). “너희가 내게서 배반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계하게 하리라” (요 14:1-3). 천사들도 같은 말을 하셨다. “가도되 갈일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나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1).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언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보시리라”(살전 4:16-18).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르시니 그 후에 우리 살게 됨은 먼저 일하고 함께 구원을 속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에서 다시 의외하라”(살전 4:16-18).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니, 또 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엄연한 진리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억과 소망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찬의 가장 깊은 진실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땀을 가녀려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심으로 자 자신의 죽음을 의의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에 대하여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돌이봄으로

또한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경차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1년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특별한 의식을 기려왔습니다. 이윽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 안에 다시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 용서하심을 기쁨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구대하며 사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른 가치들로 대치하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다른 것들과 뒤섞어야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에서 계속 된 어린양의 피를 성취하시는 죄를 씻는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예수님은 구약의 어린양처럼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부는 노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본을 메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니 자복과 만민과 백성과 다라 가운데서 사슴들을 피로 사시 하나니 노래 드시오”(제5, 5). 아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득한 아픔과 대조됩니다. “십자가의 노래”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고전 1:18).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만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 곧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변형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나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생명이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복음은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믿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가 자기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믿고 가운데 계시는 것이 모든 자로써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는 그 그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가운데서 없애시고 그 우리를 거룩케 하심을 사모함, 그 피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도 선포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념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성찬의 형식만 보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의 은총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참여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일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찰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성찰의 형식만

보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정으로 기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참여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은 무슨 생각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헌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소원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불변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려면 먼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거듭 강조해야 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십자가의 메시지, 곧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참된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되는 여러 변질된 복음들과 변하는 이론들, 그리고 변하는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구원을 살 수 없으니, 어떤 이들의 생각과 같이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리만큼의 거되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타락'이나 '죄'의 조상인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소구속된 것은 윤이나 금강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정결한 어리만큼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주고도 한 것이라' (행전 1:18-19). 돈은 금과 사라질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과 십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중
요합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천국에서

농어촌전도 사역지에는 언제나 이마용전도팀이

이 정 우(강로, 이마용전도회장)

작년 여름의 몇몇 농어촌 전도활동을 통해 얻은 짧은 경험과 그동안 각자의 사회봉사 활동 경험을 통해 익힌 실력을 토대로 금년 여름 농어촌 전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이마용 팀의 효율성을 익히 알고 있는 교구들의 신청이 꽤요. 첫사랑과 참여 열정을 무기 삼아, 미라리 마을에 47명(교도 20명)을 결성할 후 각 교구의 농어촌 전도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중에는 전론인 중심으로 팀을 이룬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2박3일의 일정 중 각 교구의 전도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을 찾아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지에도 도착하면 대개 오전 10시 쯤 되는데 그때부터 오후 5시쯤까지 파마도 하고, 조발도 하신다, 입마로 손타로, "예수 믿으시라" 하되 구원받으시라, "조"라며, 찬송도 하며, 발 부르기도 입부르기도 줄 모르고 녹초가 될 때까지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으로 떠나와서, 그 이튿날에는 또다른 교구 사역지로 출동해야 하는, 상식으로는 안 통하는, 성령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되리라 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11개 교구 연 16개 사역지역에서의 활동에 연인원 96명이 참여했으며 총 920여명의 대상자에게 봉사와 전도활동을 했는데, 어떤 회원들은 8번, 9번, 11번씩이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대상자를 상대로 30여분간의 품목 못하 게 약하고도 전도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부터는 선교위원회의 외신부 소속 외국인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2층 이마용실에서 조발봉사를 하던 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회 이마용전도회에서는 전론인 외신부도 새로 회원으로 모시고 봉사봉역을 교회 주변 불우이웃, 양로원, 시립병원 등지로 넓혀 나가고, 본교단이나 대교회와 연합하여 전도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또 교구와 상의하여 여름에 농어촌전도활동을 다녀왔던 몇몇 곳을 격려했고 찾아와 결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성장할 때까지 보살핌 계획도 가져옵니다.

각 교구의 남녀전도회에서 교구 전도사역 과로 자원하여 계속 미용 교육을 지원하여 회원들 확보해 주심을 감사하며 풀레(pool)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 교구의 전도활동 시에 항상 연합하여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 2층에 이마용전도회실(구내전도회 397)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활성화와 동성한 전도 열매 거두는 연합사역

김 철 환(집사, 교정전도회)

"우리가 알지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 (롬 8:28)

교정전도회에서는 교구와 연합하여 교도소 특별 전도집회를 실시함으로써 교도소 전도 활성화와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4교구와 연합하여 집회수 목사님의 인도로 영동교도소에서 특별 전도집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고, 지난 10월 11일에는 11교구와 연합하여 영동교도소에서도 이종성 목사님의 인도로 전도집회를 가졌으며, 21일에는 11교구와 연합하여 박경환 목사님의 인도로 순천교도소에서 은혜 가운데 전도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2교구와 연합하여 공평교도소에서 서광진 목사님의 인도로 전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춘천순천원 겨울성경학교에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도 훈련과 함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또한 8월 여름성경학교에는 춘천순천성경학교들이 나누고 자원하여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집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한때의 실수로 죄를 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 생명 열매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교정전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써 주심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정전도회는 박경환 교정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2인 1조로 전도사역 팀을 구성하여 현재 20개 교도소에서 각 교도소별로 자매 결연한 많은 수용자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와 눈물과 사모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도소별로 1년에 1회씩 교정전도회 주관으로 재소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특별 전도집회를 실시하여 말씀에 감동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교구와 함께 연합하여 감당함으로써 각 교구의 남녀전도회 전도 사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으며 전도회원들이 전도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남녀전도회와 교구들에서 교정전도회 전도 사업에 기도와 물결뿐만 아니라 직접 교도소 전도집회에 동참함으로써 교도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합하여 더욱 아름다운 중앙병원전도팀

백 명 자(집사, 청년2부 신임과 교사)

우리 중앙병원전도팀은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만나서 기도하고 둘째 목요일에 반성로 찾아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심식사 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서 성내역으로 돌아올 때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낍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힘도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하나됨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부서와 교구와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이 된다" (시 135:1)

청년2부에서 4명(집사인 집사, 이대명 집사, 이현숙 집사, 이은주)으로 시작된 우리 팀이 처음 전도할 때는 병원 측의 반대로 병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신분증을 빼앗기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뜻도 목사님인 전명환 목사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 꾀박한 이곳은 이마용전도팀이

말로 우리의 선교지와 생각하고 이 병원의 복음화를 위해 작은 거저서라도 되려고 다짐하면서 전도한 지 2년째 되는 지금은 청년2부 회원 6명(도순에 집사, 송양남 집사, 이명미 자매, 이수진 자매, 양은혜 자매, 오승민 집사)과 7교구 식구 3명(교정회 집사, 강경자 집사, 금유진 집사)이 동역함으로써 13명의 팀원이 되었다. 중앙병원이 7교구 관할 구역임에도 미처 전도하지 못했던 7교구 집사님들이, 멀리서 전도하러 오는 우리들 모습에 도전을 받았고 7교구 식구들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올해부터 우리와 동역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 팀은 이제 중앙병원 1층에서 12층까지를 복음으로 정령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이 일을 위해 더욱 많은 동역자들이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전도를 하시는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동역자로 세워 주심으로 가장이 연합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심지어는 아이를 돌봐 주시는 집사님까지 동역자로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병원전도를 위해 때로는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때로는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나아가며 때 미소소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순천교도소 연합 전도집회를 마치고 참회의 은총이 생생한 현장

박 주 한(강로, 제11교구 7지역)

제11교구 에스더전도회에서는 교구 식구들과 교정전도회 연합으로 순천교도소 전도집회를 다녀왔다. 10월 21일 새벽 6시 30분에 대원 35명은 회의를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중에서 대원들의 안전과 재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큰 신 역사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천으로 향했다.

오후 1시 30분 순천교도소 강당에서 제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시작되었다. 이들 대부분이 재범자들로 이수신한 분위기와 냉랭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예배 전 30여분의 준비 찬송을 드리고나니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다. 평범하고 어둡던 태도는 온대간데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김명수 강로님(교정전도회장)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찬양대장로님의 기도와 교정전도회 총장님의 축사는 참으로 은혜로웠다. 박경환 목사님(11교구 7지역)의 설교(요 2:11)가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라는 목사님의 간절한 외침에 약 60여명의 재소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신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곳저곳에

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 어린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준비한 TV 6대와 사랑의 떡과 간식을 선물하였다. 약복 10시간이 뒤편한 건강장래도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으나 그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함께 동행한 교구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하루였다.

교정전도회의 승은 노고와 11교구 식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일순간의 실수로 사회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계속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그들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자인가 생각하며 안경을 벗어 들었다. '용서의 주님'을 찬양한다.

▼ 교정전도회와 11교구 연합으로 실시한 순천교도소 연합 전도집회를 마치고



어린이 / 청소년

“부끄러운 예배 지각 습관 버리기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아부로부터 중등3부까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먼저 예배 지각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예배 지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 캠페인이 온 교회에 확산되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꾸준히 채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가야 하겠다. 제1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예배 지각 안하기 캠페인의 세부 실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세부실천안

♡ 학생

-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 혼자서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통편 익히기(예배 10분 전 도착)
- 반 선생님 및 동료들과 지각 안하기 연속기도
- ♡ 교사
- 학생들의 지각 사유 면밀히 파악하기
- 학생들이 혼자서, 일찍 오도록 지속적인 격려
- 교통편 자세히 알려 주기
- 신령한 예배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 지각 근절 방법에 대하여 반별 토론
- 교사가 철저히 모범을 보이기

♡ 학부모

- 자녀들에게 자립심 길러 주기
- 자녀들과 함께, 미리 교회에 오는 습관 보여 주기
- 자녀들과 함께 신령한 예배 위해 기도



사이버공간의 인터넷성교사! 중등부 홈페이지로 오세요

이 준 석(중등부총무) 하이신라 MIDDLE3

방가... (반갑습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전자통신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인터넷에 관련된 기사와 보도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청소년들에게 '만약 당신이 혼자 부모인데 가게 된다면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번째 답변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전용선'이라는 기사를 보고 요즘 세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PC방, 인터넷카페 등이 예전의 탁구장, 당구장, 다방 등을 밀어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시기의 필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회의 각종 소식과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웹교로 지친 청소년과 교인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 성교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세계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전반적인 소개와 프로그램을 활동에 대한 보고, 교역자의 교사, 학생들간의 속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 등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선 그동안 3부에서만 운영되던 홈페이지를 중등부 전체의 홈페이지로 개방, 통합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 문제로 분리된 중등부가 열린 공간인 사이버세계에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교하는 예비선교사가 아닌 당당한 인터넷선교사로 활동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런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접속하세요!!!

<http://choonghyun.net/network1.htm>

혹은 <http://middle3.cbj.net>

중등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주여, 내가 뭘 하나이다

박 한 나(중등3부)

입술로만 흐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찬양이길 원하나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보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이길 원하나이다.

나만을 나타내기 위한 연두이기보다
주만을 높이기 위한 연두이길 바라나이다.

눈으로만 읽히는 글이요, 시이기보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 전달되는 고백이길 바라나이다.

형식적으로만 믿는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계만민들의 진정으로 간직될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이길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송 지 훈(중등2부)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독하고 슬플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음을 ...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잡아 주셨음을 ...
내가 내 길을 돌아가려 할 때
주님은 나에게 가까운 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
내가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여 기다려 주셨음을 ...
내가 기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나의 기쁨을 함께하셨음을 ...

나는 말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
나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의 찬송 곡조 있는 기도 드리며 가정의 복음화 소망

남 준 자(중등1부 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저 이
루 말하라"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부르며 주님께서 나
를 사랑하시고 우리 천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 모든 식구들이 모였다. 저녁 먹은 후 사촌언
니와 형부의 제안으로 생신축하 노래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다. 내 차
례가 되자 난 깜짝했다. 도저히 아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았다. 할 수 없
이 기곡을 부르고 동생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넘겼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후회되고 안타까움이 가슴을 저민다. 천정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단가. 이런 좋은 날, 좋은
기회에 곡조 있는 기도로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전했어야

했을 것을 ...

미국에서 5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을 때 사똥고 갔던 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잇달은 엄마의 교통사고, 그러나 당초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환
자실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기도도, 찬송도 감당하게 하신 주님. "몸
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다. 불꽃같이 부오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니, 이제 두 남동생과 아버지
께서 주님을 만나는 날을 늘 마음 속에 기다린다. 1년여 전 두 여동생이 차례로 주님을 영접하
고 '언니, 새벽기도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종수, 인수가 예수님 믿을 때
덜지 않았어. 초신자때 기도하는 것 들어 주신다고 하지? 그럼 나에게 힘을 주는 동생들 덕분에 얼
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 이제 몇 년 후 아버지 천상 잔치때는 부모님과 2남 4녀 그 밖동생과
자, 자녀손까지 모두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아저 이
루 말하라" 찬송을 힘껏 부르며 지금까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간직할 수 있으리라. "주님 다
시 피을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대의 종교개혁 - 회생의 개혁, 열망의 개혁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 주도되었던 종교개혁은 가장 종교개혁이었을 때 불구하고 가장 역겹게 타락해 버렸던 중세 기독교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대어진 엄연한 대면적이었다. 이제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한련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타락의 환부들을 떠올리며 그 시대 종교개혁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의 개혁인가를 묵상해 본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오직 성경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 "오직 하나님께만" "만인 제사장주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더욱 확고해졌는가? 나를 비롯한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망설임 없이, 물론 주님께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회복하시길 그때까지 계속되어온 신교 사역과 아울러 신앙의 개혁을 도한 되었고 반목주의 쇠멸되어 가야 할 것이겠지 말았다. 교회의 개혁은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 의해 이뤄져 가고 있을 때나 각 개인의 개혁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1514년 가을 에른스트 뷔텐베르그에서 거스틴스도인 탁 사제에서 시편 22편의 은혜에 뒤이은 루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개혁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제형적 은혜와 개혁의 당위성을 기반으로 시작

된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가 생각하고, 생각해 왔고, 생각했던 바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종교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일차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혁의 초석을 이루는 회생이 아니겠는가!

종교개혁은 사실 구약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개혁이 이스라엘 9장 1-10절에 기술한 이스라엘의 아주 단호했던 개혁일 것이다. 유대교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이방 풍속을 쫓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던 것을 다 돌려 보내기까지 하는 결단과 고통의 개혁이었다. (여러분이 없던 거장을 상상해 보라. 그것처럼 폐해한 모습이 또 있었는가?) 이것이 '하심' 담이라는 경건주의자들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결국 메시아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후회해 버린 까닭은 은혜없는 회생 혹은 회생없는 은혜의 폐해함 때문일 것이다.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과 눈물은 내놓지 않는 회한한 결단, 열매 하나도내며 죽음까지도 바칠 것 같지만 성공과 출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 순고한 위인의 모습이 혹 우리 자신의 종교개혁의 모습은 아닌가.

개인의 종교개혁은 회생의 개혁이며 동시에 열망의 개혁일 것이다. 그런 개혁이 은혜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개인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체험했던 것과 같은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비록 열매까지지기를 바라보기 어려운 대장정이지만 그러한 대장정이 없이는 결코 개혁은 이뤄지지 않으며 개혁이 없이 이 시대 속에 서 몇의 자녀로 산다는 생각은 진정한 결실의 계절에도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복음적인가, 형식적인가?

말씀 속에서와 달리 실제생활에서는 무엇이 윤택하고 무엇이 복음인가를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새롭고 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고 성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교에 비해 우리 교회의 주일성수는 유명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대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주일을 성수하여 신앙인으로 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함양하게 됩니다."

"세태와 융합하지 않는 보수 정신입니다. 끝까지 말씀 중심의 보수신앙을 고수하는 교회의 방향이 참으로 믿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언더를 가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입니다. 순수복음만을 강조하는 믿음을 통하여 바른 굳건한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아직 형식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성수입니다. 아예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에 필요한 물품 하나를 살수도 해서 이것이 주일성수를 위해서는 일입니까? 이것이 믿음을 깨는 것대기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뿐 아니라 찬송기도도 자유스럽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복음송을 통해서 더욱 은혜를 받는데요. 저는 중학생인데 아직은 복음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요. 물론 찬송도 부르겠습니다."

"예배시간에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청바지를 입은 것 때문에 무안을 주는 일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청바지를 입고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집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나 여전히 많은 것이 형식에 치우쳐있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강화되다보니 주객전도 격으로 복음의 수혜자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소외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연희 기자)

장로수련회를 다녀와서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자

손 경 수(장로, 청년2부 부장)

장로수련회를 다녀왔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제를 내걸고 이틀간(10월 18-19일) 진행된 99년도 가을 장로수련회는 43명의 장로와 32명의 장로 부인들이 참석하여 순교자를 답사하며 가을의 향취를 만끽했다.

경기 화성 제암리에 위치한 제암리교회(담임 강신범 목사)를 첫 방문지로 시작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보령와려발전소를 견학하고, 여수 애양원에서 신앙간증 청취와 기념관 관람, 그리고 중앙원 목사 묘소 앞에서 기도회,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의 가을 단풍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오희한 수석을 찬양했다. 제암교회 강신범 목사는 일제 치하의 제암교회의 역할과 순교정신을 설명하면서 "나라 없는 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예배만 안에 아무 죄도 없는 교인들을 가꾸어 놓고 출몰문을 폐해한 것 불을 질러 태우는 일본군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21명의 고귀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참상은 가슴 아픈 사건임"을 역설했다.

수련회 일정에는 없지만 김천체 장로의 섬위로 보령에 위치한 화령발전소를 약 2시간에 걸쳐 견학해 되었다. 154만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동 발전소는 671고에서 30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하루 석탄 소모량(호주산)이 12억원이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계에서 몇몇해 안가는 화전발전소로 주위 환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탓에 외국인들이 자주 와서 견학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지리산 송원리조트에서 하루 여정을 힘과 동시 교회 예배와 찬양 연습(지휘 차신득 장로)을 가졌다. 교회예배에서 장로회 회장 윤영식 장로는 계시록 2

장 10절 본문을 인용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전제하고 "토마스 목사의 대장정에 부인 순교의 피로 시작하여 왜정시대에는 3·1운동과 신사참배문제, 해방 후에는 북한에선 공산당의 탄압으로, 그리고 6·25 때에는 공산군들에게 무장히 총살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음"을 회상했다. 이의 미에서 우리 장로들은 전리 안에서 말씀 사수와 자기적책에 책임 감당함은 물론 믿음의 열매를 지키며 전승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함"을 강조했다. 하트뱀을 권히 쉬고 이튿날 새벽 5시 30분에 호태 대원회장에서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새벽기도회 인도를 맡은 김자생 장로는 "순양원 목사 순교의 교회사적 의미"를 약 20여분간 설교하며 순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투옥생활, 나환자들과의 동거생활, 사형하는 두 아들(동인, 동신)을 죽인 잔인성 청년을 아들로 삼은 일, 그리고 아들 장제식대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드리는 기도인 일,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산 순 목사의 순교적 실천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오전 10시 애양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선상교회의 (담임 이광일 목사)에서 송양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김수남 권사(91세)의 신앙 간증을 약 10분간

들었다. 17세부터 순 목사의 목회사역을 계속 도와온 김 권사는 카랑가랑한 목소리로 "순 목사의 일생은 보통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로 서두를 건너 뒤 숲한 목소리로 "나환자의 아버지와 형님으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또 전국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고, 신사참배 거부시에는 우상 켜기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곳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직들의 손을 잡고 우리 다같이 순교하자는" 단호한 결심이 지금도 생생하다면서 "예수 위하여 죽어야 산다는 신앙으로 순 목사가 자신이 물질에 침몰하고 사재를 탕진시킨 어려운 사람 나니 주고 남는 돈은 제직회 회계에 맡겨 나환자 신학교 건립에 사용할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간증 이후의 김장중 장로가 부른 찬송은 은혜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다시 한번 송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과 믿음을 재확인했다. 바다가 앞에 위치한 송양원 목사 부부와 아들 동인, 동신의 묘앞에서 송동은 장로 인도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순 장로는 "올라, 아니라"를 분명히 해야 할 것과 순교의 의미를 이해하나라 중심 제직들이 더욱 매진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동생기도를 하고 애양원을 떠났다.

"한나라와 광복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이 자꾸 가슴에 와닿아 우리 성도들은 물론하며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장로회 회장 윤영식 장로를 비롯하여 총무 전홍렬 장로, 부간사 한송규, 김춘근, 김영수 장로가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하고 싶다.



지체들 소식

영어부

어떤 사랑을 배부실까

오늘은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는 날로 우리와 처음 만나는 새 친구와 장기 결석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 우리 모두는 전회심방과 교회 안에서의 전도 또는 이웃의 전도를 준비하여왔다. 강성제로 마련한 선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9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은 영어부에게 어떤 사랑을 배부실까?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하는 우리들

10월 24일 '새 친구 초청 잔치'를 가졌어요. 몇 주를 기도하고, 전파하고, 분당 앞에서 전도하고 새 친구들이 집회심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준비했더니 예수님이 예배 친구들을 많이 보내 주셨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마음은 항상 바라지만 몸은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친구들이 많이 왔지만 새 친구들과 전도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고 선물도 받고 얼마나 신나하! 유아부는 오전 9시, 11시, 2번 열립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찬양대가 달라졌어요

금년 초 다소 소란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 열려서 쉬었던 분위기가 점점 차분하고 의젓하게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제법 어렵고 힘든 곡도 무리없이 화음을 맞추며 듣는 이에게 감동을 끼치는 멋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애정없는 수고, 그리고 어린 대원들의 아름다운 헌신적 조화를 이루어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느라 뜻깊은, 특히 봄-가을을 두 차례 실시한 '찬양대 수련회'가 이들이 더욱 성숙되고 활기있게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듯합니다. 지난 23일 있었던 이번 가을수련회를 통해 화합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더욱 멋진 어린이 찬양대가 되기를 열망하게 다짐하였답니다.

(윤숙희 통신원)

초등부

'천국 문이 닫힌다 빨리빨리 모이지'

저희 초등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지각 안하러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이 닫힌다 빨리빨리 모이지' 하는 표어와 '세월을 아까워 때가 기쁘다' (렘 5:16) 주제성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 (300장) 주제찬송을 전하고 오늘(31일) 학부모임들에게 협조문을 보내어 관심을 가지고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들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개뿔무뻔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청년2부

오늘 총회, 회장단 선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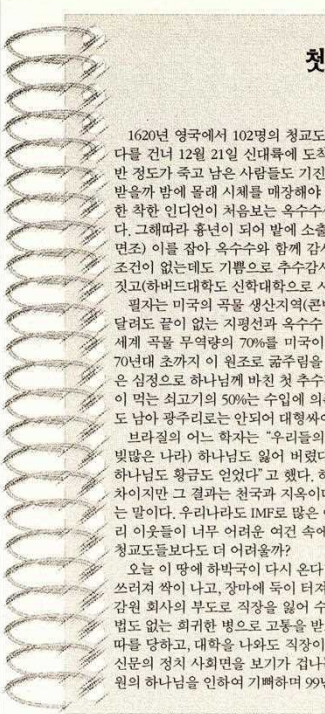
바로 오늘(31일) 12시 30분에 청년2부 교육관 514호에서 제3회 총회와 회계 제6대 회장단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29일) 저녁에는 신관회 주회로 임후보자들이 지지발언회를 마련하는데 원에 올라가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세기 청년2부를 새롭게 개혁하여 앞으로의 비전들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되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청년2부를 위해 연합할 수 있다"면서 임후보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청년2부를 위해 더욱 헌신을 다짐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로 했다.

(백명자 통신원)

소망부

찬송경연대회, 과별로 여섯반씩

10월 24일 찬송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정곡 두 절, 자유곡 한 절 정해졌고 과를 별도로 한 과에 여섯반씩 나가지 반수에 맞추어 총합한 경연(7) 속에서 수준별로 경연대회를 잘 마쳤다. 지난번 성경퀴즈대회에 이어 이번엔 찬송경연대회를 하니 흥겨운 분위기가 한결 더



물 · 매 · 물

첫번째 추수감사절

노영환(집사, 대학부 교사)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자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 12월 21일 신대륙에 도착하였다. 그해 겨울은 예 그리 추운지 겨울이 지나고 나니 반 정도가 죽고 남은 사람들도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이 알린 공격을 받을까 밤에 몰래 시체를 매장해야 했고 낮에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행세해야 하였다. 그래도 한 착한 인디언이 처음보는 옥수수씨를 주고 그 땅을 개간하여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해따라 흉년이 되어 밭에 소출이 없었고 추위에 처음 보는 이상한 큰 새가 있어(야생 칠면조) 이를 잡아 옥수수와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감사한 조건이 없는데도 기쁨으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우선 교회를 짓고, 다음에 학교를 짓고(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필자는 미국의 곡물 생산지역(콘네티컷)을 몇 차례 돌러볼 기회가 있었다. 하루종일 자동차로 달려도 끝이 없는 지평선과 옥수수 밭은 장관이었다. 사료곡물이 많으니 축산도 발전했고 전 세계 곡물 무역량의 70%를 미국이 담당하고 가난한 나라에는 무상원조도 한다(우리나라는 70년대 초까지 이 원조로 굶주림을 면했다). 칠면조 두어 마리 옥수수 몇 개를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친 첫 추수감사절 이후 지금은 옥수수, 밀, 수수, 콩, 호박(우리국민이 먹는 최고의 50%)는 수입에 의존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까지 전 세계를 먹이고 도 남아 광주리로는 안되어 대형새이로와 병충상고에 쌓이고 남게 되었다.

브라질의 어느 학자는 "우리들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곳에 왔으나 황금도(세계 제1의 빛나는 나라) 하나님도 잃어 버렸다. 그러나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미국에 건너와 하나님도 황금도 얻었다"고 했다. 하나님(God)과 황금(Gold)은 영어로 한 자가 더 있고 없는 차이입니다. 그 결과야 한국과 미국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IMF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헤매다. 우리 이웃들이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한다. 그러나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보다도 더 어려움까지

오늘 이땅에 학박국이 다시 온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 "비록 태풍에 다 익은 벼가 쓰러져 썩어 나고, 장마에 독이 터져 물에 잠기며, 배사와 열매가 태풍에 떨어져 없어지고, 명목 가진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고, 학교 각종 경비으로 고통을 받으며, 치료 방법도 없는 희귀한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복지의 사교로 가족과 친지를 잃으며,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없으며, 대입 삼수 종료, 비록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고, 심문의 정치 사회면을 통하여 기뻐하며 9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리리다"

치웃었다. 소망부는 매주일 누구의 손길든 똑같이며 특출하며 일년내내 은혜의 잔치 분위기다. 교사들도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들을 모시고 있다. 총회교회에 나오시는 자녀분들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시다면 우리 소망부에 꼭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형중 통신원)

시랑부

시랑장 장비 동원하여 성경 공부

지난주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열은 양의 비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학생들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시청각 교육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OHP필름과 VTR상영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모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열망과 학습 능력에 세부적인 차별화를 둘 수 있는구나 현재 사람부 설정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흥미와 집중력을 극대화하여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반공부 시간에는 말씀을 토대로 한 교재를 가지고 교사들의 설명에 따라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연결 활동을 한다. 비록 한 주일에 한번 긴 시간을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민혜정 통신원)

15교구

한마음 하나 되어 주영호와 찬양

22일 금요일에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기도 한 갈라디 2:20 말씀이 주제인 찬송가 465장을 연합 찬양으로 드렸다. 찬양은 성도들의 마땅히 드릴 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러나 전을 뵈는 것에 드러나 한 찬양이던 열려하면서 연합을 했다. 악기들을 다룰 줄 아는 6세 꼬마부터 시작하여 교구 오케스트라도 동원하고, 연로하신 분들까지도 찬양에 최선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또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 되어 찬양으로 하나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숙영 통신원)

충현복지관

NHK 주최 장애인 친선 프로그램 참가

지난 10월 13-19일 일본 NHK후생문화사업단에서 주최하는 Friendship Tour프로그램에 복직된 직업훈련생 1명과 교사 1명이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신지체인과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일본의 정신지체인의 취업 및 주거 환경, 사회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로의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래의 글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직업훈련생 이원준(남, 21세)의 글이다.

일본보고서 - 이원준(직업1생)



공청에서 팀장 선생님과 원준이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겠습니다. 세계 모두 친구들이 모였으니 다. 도루시마에서 방직 구경하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도 했습니다. 통역 선생님과 일본 친구들이랑 일본 밭에서 하고 파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전기회사를 구경을 했습니다.

충현복지관 친구들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에게 더욱 잘하고 사이좋게 일을 하겠습니다. 충현복지관 친구들이 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